

출범 후 처음으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현장 방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입구에서 서생면 주민 대표가 신고리 5·6호기를 현장 방문한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에게 건설 중단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을 둘러 보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8월 28일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공론화위가 건설 현장을 방문한 것은 7월 24일 출범 이후 35일 만에 처음이다. 공론화위 방문 시 ‘공사 중단 반대 범울주군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은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로 진입하는 2개 차로를 모두 점거하고 “5,6호기 예정대로 건설하라”, “법적 근거 없는 공론화위는 즉각 돌아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론화위 버스를 가로막기도 했다.

공론화위는 새울원자력본부에서 김형섭 본부장으로부터 한수원 현황과 신형원전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 본부장은 “후쿠시마 등의 원전 사고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건설하는 원전은 그 구조부터가 차원이 다른 것이다”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김지형 공론화위 위원장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앞으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자 오늘 방문했다”면서 “앞으로 공론화위가 구성할 약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식과 정보를 잘 전달달라”고 당부했다.

공론화위는 이어 공사가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현장을 둘러보며, 건설소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 이어 위원들은 비공개로 현재 가동 중인 신고리 3호기를 방문해 터빈 건물 등 주요 설비를 확인했다.

애초 공론화위는 원전 건설 중단을 반대·찬성하는 주민을 차례로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주민 측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특히 공론화위가 ‘여론을 수렴했다’는 구실로 삼기 위해 제안한 요식적인 간담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반발해 만남은 무산됐다.

공론화위는 울산을 떠나기에 앞서 KTX울산역 회의실에서 건설 중단을 찬성하는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을 만났다. 건설 중단을 찬성하는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들은 “신고리 5,6호기는 지진 안전성 평가와 다수 호기(여러 원전을 한 곳에 밀집해 짓는 것)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의견을 밝혔다.